

이코노&비즈 피플

정 석 주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기본자산 다각 확충... 서민에 더 다가가겠다”

기금출연 기관·단체·기업으로 확대

보증지원 모르는 시민 많아 홍보 노력

빈곤층 도움 ‘광주만의 보증제’ 만들 것

“지역 중소기업인과 영세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 대표 전문보증기관인 만큼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을 위한 보증지원과 서비스도 확대해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 제 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정석주 이사장(58)은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인의 든든한 금융동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더욱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를 위해 광주시 출연에 의존하고 있는 재단의 기본자산 확충에 역점을 두고 서민들에 다가가는 현장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복안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재단이 설립된 이후 18년 이상 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재단과 신용보증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이제라도 재단과 보증지원제도를 알리는 데 노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재단의 기본자산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의 출연이 시비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재단의 보증지원이 공공성을 띠는 만큼 출연금을 보다 다양한 기관과 단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영업하며 돈을 벌었다면 지역에 일정부분을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 가능한 수준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우호적인 재단기금 출연을 유도해 서민을 위한 지원기금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원들과 막힘없고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경영 철학과 그동안 금융전문가로 일하며 터득한 결론에 따른 것이다.

“저를 포함한 재단 임·직원 모두가 직접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회 등 유관기관을 방문으로 찾아다닐 겁니다. 재단의 역할을 알리고, 수요자가 원하는 보증서비스가 뭔지를 알아야 정책을 펼 수 있죠.”

재단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정 이사장은 빈곤층을 포함해 서민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Grameen)뱅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이크로크레딧’에 주목하고 있다. 빈곤계층이 소규모로나마 자신만의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무담보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을 지역 사정에 맞게 수정·개발해 광주만의 효율적인 보증지원제도를 만들어보겠다는 포부다.

정 이사장은 또 서민 보증부대출인 ‘햇살론’을 비롯해 ‘청년창업특례보증’, ‘장애인기업특례보증’ 등 재단이 내놓은 다양한 보증상품이 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정 이사장은 “앞으로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민 모두에게 제대로 된 금융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1년 광주은행에 입사해 30여 년간을 금융업계에서 일한 정 이사장은 국제금융역과 경영진단사 자격도 갖추고 있는 금융 전문가다. 광주은행 지점장과 광은비즈니스(주)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협은행 공격경영 주목

점포수 KB 제치고 1위...증권·생명보험도 급성장

금융권에 몰아닥친 구조조정 의 파파 속에서 농협은행의 확장 경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이 ‘몸집 줄이기’에 여념이 없는 데 비해 농협은행은 지점 수를 업계 최대 수준으로 늘리며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펼치고 있다. 증권과 생명보험 부문도 업계 1, 2위로 각각 올라서는 등 농협의 급성장에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같은 기간에 점포 수는 1184개에서 1195개로 늘어났다. 이 기간에 국민은행의 점포가 40개 가까이 줄어 1161개로 축소된 것과 대조된다.

은행권 부동의 1위였던 국민은행을 제치고 농협은행이 점포 수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커진 덩치를 과시하듯 농협은 공격 경영을 펼치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농협의 예금 증가액은 11조4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에 그친 2위 우리은행의 2배가 넘는다. 대출(8조1000억원), 펀드(1조2000억원), 퇴직연금(4600억원) 모두 증가액 1위를 차지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저금리 추세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나빠지면서 시중은행마다 점포 수를 줄이고 대규모 명예퇴직을 단행하는 등 구조 조정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상반기 말 203개였던 한국씨티은행의 점포 수가 올해 9월 말 134개로 줄어드는 등 씨티·SC·하나·국민·신한·외환·기아·우리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의 점포 수는 1년여 동안 270여개나 감소했다. 전체 점포의 5%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의 임직원 수는 2000명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은행권 구조조정이다.

은행 뿐 아니라 생명보험과 증권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다른 생보사의 견제로 2017년까지 판매하지 못하는 변액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하면 농협생명의 수입보험료는 이미 삼성생명에게 이어 업계 2위까지 올라섰다. 2012년 초 출범 당시 4위였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농협의 급성장 배경은 안정적인 지배구조와 방대한 영업망이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말 1만4600여명이던 임직원 수가 올해 9월 말에는 1만5700명 가량으로 늘었다. 농협본부에서 건너온 800여명의 IT 직원을 제외하더라도 300명 가

금융권 관계자는 “농협의 브랜드 가치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금융권 최고 수준일 것”이라며 “이러한 브랜드 가치와 안정적인 지배구조, 방대한 영업망 등이 농협금융그룹의 급성장을 가능케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음카카오 합병주 상장...코스닥 1위 등극

시가총액은 보안 약재로 기대 못미친 7조8000억원대

다음이 카카오와의 합병 신주 상장 첫날 7조8천억원대 시가총액으로 코스닥시장 1위주에 오르며 다음카카오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다음카카오’로 공식 변경될 때까지 종목명은 당분간 다음으로 유지된다.

애초 시장의 기대에 비해 시총 규모와 주가 오름폭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개인정보 보안 문제로 다음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걸 감안하면 다음카카오 경영진의 발 빠른 대응이 주가 방어에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날 다음의 시총 규모는 애초 시장의 기대를 밑돌았다. 최근 카카오의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시장은 다음카카오의 합병 신주가 상장되면 시총이 9조~10조원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14일 코스닥시장에서 다음은 전 거래일보다 8.33% 오른 13만9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카카오와의 합병 신주가 상장되며 다음의 시총과 상장주식 수가 모두 변했다. 상장주식 수는 전날 1356만2629주에서 이날 5656만3063주로, 시총은 전날 1조7414억원에서 이날 약 7조87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로써 다음은 셀트리온(시총 약 4조4500억원)의 갑질에 가까운 시총으로 코스닥시장의 ‘대장주’ 자리를 꿰찼다.

현재 13만원대인 다음의 주가 역시 증권사들이 제시한 합병 신주 상장 이후 평균 목표주가(18만2000원)에 크게 못 미친다.

카카오측에 대한 갑질의 실시간 검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음의 주가는 이달 초 16만6500원(1일 총가)에서 전날 12만8400원으로 6거래일 만에 23%가 떨어졌다. 물량 부담도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다만 상호명은 여전히 ‘다음’이다. 오는 31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상호명이

그럼에도 증시 전문가들은 다음의 이날 주가 흐름이 우려됐던 것보다는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합병 신주 상장일 직전에 개인정보 보안 문제라는 약재가 터졌지만 다음카카오 경영진의 발 빠른 초기대응으로 주가의 추가 하락을 막았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19일부터 내달 7일

전국 19만9000가구 대상

통계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전국 19만9000가구를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발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시·군별 고용률·실업률, 산업·직업별 취업자 등 통계는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가운데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는 내년 2월, 산업·직업별 특성 등 세부지표는 내년 4월에 각각 공개된다.

조사는 가구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면접 조사와는 별도로 오는 19~24일에는 인터넷조사도 병행한다.

박형수 통계청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 작성 목적에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세계 최대 용량 시스템 에어컨

삼성전자 모델이 14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세계 최대 수송 용량(75.4kW(26마력))의 ‘시스템에어컨 대용량 DVM S’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부동산 경매

- ▶특수 비법 배우실 분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배우면서 투자 가능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등 집기 제공
사용료 연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공동 투자자 모집

- 1억원 이상
- 연 수익률 20%이상 보장
- 소유권/근저당 으로 보장